

조선시대에 사용된 천연염료의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 고찰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²忠淸南道 保寧市 保健所 公衆保健韓醫師
³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⁴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副教授
⁵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윤은경¹ · 이상빈² · 백유상³ · 김종현⁴ · 안진희^{5*}

A Study on the Therapeutic Usage of Natural Pigments in the Joseon Period

Yoon Eunkyung¹ · Lee Sangbin² · Baik Yousang³ · Kim Jong-hyun⁴ · Ahn Jinhee^{5*}

¹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ublic Health Doctor of Korean Medicine, Boryeong-si Community Health Center, Chungchengnam-do
³Professo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⁴Professo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⁵Professo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therapeutic application of natural pigments in the Joseon Period other than aesthetic purposes.

Methods : The medicinal properties of natural pigments as written in the texts *Sangayorok*, *Gyuhapchongseo*, *Imwongyeongjeji* were searched and analyzed in the texts *Bencaogangmu*, *Encyclopedia of Eastern Medicine*, and the *Encyclopedia of Chinese Medicinals* focusing on their Qi, flavor, effects and application. Of the conditions they treated, we examined whether they treated skin conditions using external application. The Korean Medical effects of these pigments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kin chapter of the *Donguibogam*.

Results : We were able to extract 47 kinds of natural pigments, most of which had cold nature and bitter tasting properties. In addition, most of the pigments had the effect of treating skin conditions, illnesses due to micro-organisms, and of detoxifying.

Conclusions : After consideration of medicinal properties and effects of the herbs that were used as pigments in the Joseon period, it could be concluded that as these herbs not only function as pigments but also hold properties that prevent skin conditions, their therapeutic functions could have been considered when using them as pigments.

Key words : Pigment, Skin Condition, Sangayorok(산가요록), Gyuhapchongseo(규합총서), Imwongyeongjeji(임원경제지)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ro, Samrye-eup, Wanju-gun, Jeollabuk-do, Korea.

Tel : +82-63-290-1562, Email : jini@woosuk.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May 10, 2024), Revised(May 20, 2024), Accepted(May 20,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은 그 사용 빈도와 인체와의 밀접함으로 인하여 합성물질보다는 천연물질 소재가 선호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나 몸에 흡수되는 용품, 피부에 닿는 물건 등에서는 이러한 선호가 더욱 두드러진다. 섬유제품은 생활용품들 중에도 인체와 접촉이 가장 많은 것들로, 섬유의 빛깔을 내는 천연 염료에 대한 연구는 향후 생활용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옷이나 침구류에 사용되는 섬유는 섬유 자체의 소재 외에도 그것을 염색하는 염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조선시대부터 생산되고 꾸준히 활용되어 온 천연염료가 한의학의 내복하는 약용 본초와 상당 수 겹치므로, 그 치료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미래에 활용 가능한 천연 염료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사용된 천연염료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연구로 주로 『林園經濟志』, 『閨閣叢書』, 『山林經濟』, 『山家要錄』 등 염료를 기재한 문헌을 분석한 것들이 보고되었다. 백종숙¹⁾의 연구는 각 색에 대하여 쓰이는 염료를 정리하고 조선시대 색의 문화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특징이며, 김순영²⁾의 연구는 조선의 염료를 정리하여 조선과 중국에서 동시에 쓰이는 염료를 고찰하였으며, 이희연³⁾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쓰였던 식물성 염료에 대해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고경신⁴⁾의 연구에서는 각 염료들을 정리하여 그 화학성분, 가시광선과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천연염

료의 한의학적 특성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국내의 연구들이 주로 염료의 종류와 일반적 특징을 분석했다면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일부는 천연염료의 한의학적 효능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朱利霞⁵⁾의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에 쓰이는 약재의 염색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고, 王風蘭⁶⁾, 鄧赧⁷⁾ 등의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의 효능에 대해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부재했다.

두 번째로 천연 염료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기능성 증진을 위해 한방약재와 천연염료의 복합염색에 대해 다룬 연구⁸⁾, 수련 잎 추출색소의 염색성과 기능성에 대해 면섬유⁹⁾ 및 견모섬유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¹⁰⁾, 천연염재 쑥속(Artemisia) 식물의 염료가 염색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¹¹⁾, 감귤박 추출액의 천연염료로서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다룬 연구¹²⁾ 등이 있었고, 천연염료의 기능성은 주로 항균성으로 피부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上記한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 천연 염료를 대상으로 그 기능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추가로 외치요법과 관련한 선행 연구 중 정명용 외 3인의 연구에서는 理論駢文을 대상으로

1) 백종숙. 朝鮮時代 染料의 文獻의 考察. 원우논총. 1985. 3집. pp.211-238.
2) 김순영. 조선시대 염료의 종류와 유형. 한국의류학회지. 2014. 38(2). pp.201-215.
3) 이희연. 天然染料에 관한 문헌적 고찰. 關大論文集. 1992. 20(2). pp.43-58.
4) 고경신. 한국 전통 염색방법의 화학기술 (I) - 「규합총서」와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방법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10(1). pp.56-75.

5) 朱利霞. 中藥天然染料의開發和應用初歩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6) 王風蘭, 張寧. 中藥天然染料의開發和應用初歩研究分析.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6. 16(59). p.70
7) 鄧赧 外4人. 中草藥天然染料의開發和應用. 中藥材. 2008. 31(09). p.1448-1451.
8) 이원권. 기능성 증진을 위한 한방약재와 천연염료의 복합 염색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1-154.
9) 여영미, 유동일, 신윤숙.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수련 잎 추출색소의 염색성과 기능성(1) - 면섬유 염색을 중심으로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2016. 28(4). pp.290-298.
10) 여영미, 신윤숙.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수련 잎 추출색소의 염색성과 기능성(2) - 견모섬유를 중심으로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2017. 29(3). pp.171-179.
11) 이정은, 권영숙. 실버세대 감성교육을 위한 천연염재 쑥속(Artemisia) 식물의 염료가 염색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015. 24(5). pp.633-639.
12) 김기훈, 김해곤, 임현아. 감귤박 추출액을 이용한 천연염료의 염색성 및 기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014. 22(3). pp.431-439.

외치요법의 처방 선택과 처방조제 원칙을 다루었는데 내복약은膏를 만들어 외치에 사용할 수 있고, 내복약의 처방구성도 외치에 적합하게 바꾸어 사용한다고 하였고¹³⁾, 문우상 외 3인의 연구에서는 외치요법의 이론과 적응증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외치법으로 외부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밝혔다.¹⁴⁾ 이석재의 연구¹⁵⁾도 염색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약재들을 통해 外治로 內科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는 피부와 체내의 五臟六腑가 연결되어 있음¹⁶⁾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은 이 전제를 공유하여, 內服藥으로 쓰이는 약재들이 피부질환에 어떤 效能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쓰인 천연염료들의 약성을 분석하여 피부 질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염료들의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기서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이란 천연염료를 전문적인 의약품으로서 직접적인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이 천연염료를 사용할 당시 심미적 목적 이외에 의학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기능성 염료의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에 사용된 천연염료의 의학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과학적 연구가 아니며, 본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적으로 천연염료가 실용화되는 데에 있어 근거가 되는 연구에 가깝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 방법으로는 『山家要錄』,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등의 문헌에 기재된 천연염료 목록을 대상으로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등에 기재된 기원, 약성, 효능주치에 기반하여 분석

하였다. 천연염료들은 피부 관련 병증을 치료하는 것들이 많기에, 염색 이외에도 의학적 효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염료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내용을 『東醫寶鑑·皮門』의 내용과도 연결시켜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같이 천연염료의 심미적인 용도 외에도 의학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천연염료의 피부질환에 대한 의학적 활용도를 높이고, 천연염료가 가진 의학적 효능이 추가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本論

천연염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山家要錄』,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등의 문헌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山家要錄』(全循義, 1450년경)¹⁷⁾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종합 농서로서 축산, 수목, 식품 등을 폭넓게 기술하고 있다. 그 중 염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芝草, 紅花, 藍 등 7개의 염색식물의 재배법을 설명하였으며, 紅色, 黑色을 비롯한 여러 색의 염색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저자 全循義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때 御醫를 지냈으며 『食寮纂要』을 저술하기도 하여 기재된 천연염료의 의학적 활용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閨閣叢書』(憑虛閣 李氏, 1809)¹⁸⁾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

13) 정명용 외 3인. 약학변문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 외치요법의 처방 선택과 처방조제 원칙 -.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1). pp.65-88.

14) 문우상 외 3인. 외치요법의 이론과 적응증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4. 10(2). pp.1-21.

15) 이석재 외 5인. 내병외치약물(內病外治藥物)에 관한 문헌적(文獻的) 연구(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2). 2009. pp139-199.

16) 蔡炳允 著.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93. p.74.
신광호. 漢方 外用藥. 도서출판 열린책들. 서울. 1994. p.9.

17) 엄정섭. 山家要錄(山家要錄) 농서(農書) 부문의 편찬과정과 서술방식. 지역과 역사. 2011. 28. pp.69-108.

全循義 撰. 山家要錄. 水原. 농촌진흥청. 2004. pp.5-15.

산가요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 [cited on April 10, 2024] ;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2%B0%EA%B0%80%EC%9A%94%EB%A1%9D&ridx=0&tot=31>

18)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성문학회연구. 2000. 1. pp.271-304.

憑虛閣李氏 著. 鄭良婉 譯註. 閨閣叢書. 과주. 보진재. 2008. 규합총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cited on April 10, 2024] ;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

표 1 『山家要錄』,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각각에 기재된 천연염료

	염료로 쓰인 재료 ²¹⁾
山家要錄 ²²⁾	芝草, 紅花, 藍, 梔子, 地黃, 菊, 罌粟, 복숭아나무(桃槐) 껍질, 五里木 껍질, 밤 껍질(栗外刺殼=栗毛球), 개나리(連翹木) 껍질, 躑躅花, 늪지 않은 밤나무를 벗겨 속과 겉 사이 중피
閨閣叢書 ²³⁾	紅花, 紫草, 藍, 鼠李, 槐花, 薑草, 倭黃連, 黃柏, 鬱金, 鷄腸草, 唐墨, 뽕나무 굵은 가지를 베면 그 속에 고갱이 붉은 것/뽕나무 누른 껍질(=桑枝), 杜梨(팔배나무 껍질), 黃茶, 苦楝根, 香薷, 金錢花, 蜀葵花
林園經濟志 ²⁴⁾	蘆木, 紅花, 蘇木, 黃丹, 槐花, 阿郎吾皮, 山杏木, 梧里木, 茜根, 蜀葵花, 虎杖根, 代赭石, 黃柏, 藍, 棠梨皮(=甘棠木皮), 金錢花, 老葛梅皮(=鼠李皮), 栗殼, 蓮子殼, 百藥煎, 秦皮, 楊梅皮, 五倍子, 黃蘗, 胡桃青皮, 栗木不老者去外皮只取中間皮, 荊葉, 紅茶, 櫟木皮, 黃土, 桑木, 石榴樹皮, 墨, 石榴皮

고 있는 종합서로서, 여성들의 가정 내 생활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酒食議』, 『縫紉則』, 『山家樂』, 『靑囊訣』, 『術數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縫紉則』의 ‘染色諸法’ 부분에 다양한 염색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셋째, 『林園經濟志』(徐有榘, 1764-1845)¹⁹⁾는 총 113권 5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전반에 대한 것 뿐 아니라 醫藥 등 넓은 범위를 다룬 백과사전이다. 『林園十六志』 또는 『林園經濟十六志』라고도 하며 총 16志 가운데 길쌈에 관한 일을 정리한 ‘展功志’의 卷2, ‘凍染’ 부분에서 염색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들 문헌에 기재된 천연염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²⁰⁾ (표1 참조)

문헌의 해당 내용 가운데, 각 염료의 기원, 氣味,

歸經, 效能主治 등을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3개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각 약재를 가다나순으로 배열한 뒤 출전과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류와 직접 접촉하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치료에 上記 염료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여 향후 기능성 염료의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언급된 염료들 중 阿郎吾皮(『林園經濟志』), 蘆木(『林園經濟志』), 黃茶(『閨閣叢書』) 각각의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재료들은 표1의 천연염료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기원, 氣味, 歸經, 效能主治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 甘棠木皮²⁵⁾ (『林園經濟志』, 『閨閣叢書』)

甘棠은 棠梨의 이명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杜梨가 있다.²⁶⁾ 『林園經濟志』에 甘棠木皮, 棠梨皮라는 표현이 나오고, 『閨閣叢書』에는 팔배나무 껍질(杜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같은 것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東洋醫學大辭典』에는 甘棠木皮, 棠

d=%EA%B7%9C%ED%95%A9%EC%B4%9D%EC%84%9C&ridx=0&tot=149

19) 엄정섭.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 연구. 2009. 8(1). pp.1-42., 徐有榘 著. 林園十六誌 卷一. 서울: 보경문화사. 2005.

임원경제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cited on April 10, 2024]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E%84%EC%9B%90%EA%B2%BD%EC%A0%9C%EA%7%80&ridx=0&tot=23>

20) 각 책에 나온 내용들 중 섬유를 염색할 때 쓰는 매개물인 매염제는 다루지 않았다.

21) 명확하게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한자로 표기하였고, 나머지는 책의 표현 그대로 쓰거나 책의 표현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22) 全循義 撰. 山家要錄. 水原. 농촌진흥청. 2004. pp.58-61, 136-137.

23) 憑虛閣李氏 著. 鄭良婉 譯註. 閨閣叢書. 과주. 보진재. 2008. pp.165-176

24) 徐有榘 著. 林園十六誌 卷一. 서울: 보경문화사. 2005. pp.515-518

25)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990.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67.

『本草綱目』, 『中藥大辭典』, 『東洋醫學大辭典』 등의 책의 내용을 보고 기원, 氣味, 效能主治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책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각주를 달기보다는 약재명에 전체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각주를 달면서도 필요에 따라 서지 사항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 각주도 달았음을 알려 두는 바이다.

2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990.

梨皮, 棠梨와 관련된 항목이 없고, 『本草綱目』과 『中藥大辭典』에는 棠梨 항목을 두었으며, 『中藥大辭典』에서 그 기원을 장미과 식물 棠梨(*Pyrus betulaefolia* Bge.)의 과실이라고 하였다, 甘棠木皮, 棠梨皮 등의 藥性和 效能主治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本草綱目』에서 棠梨의 枝葉을 다룰 때 그 氣味가 열매와 같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樹皮인 甘棠木皮도 棠梨의 氣味와 같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中藥大辭典』에서 棠梨의 氣味는 酸甘寒하고, 肺肝經에 들어간다고 했으며, 『本草綱目』에서는 澁한 성질이 추가되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 “燒食, 止滑痢.”라고 하여 澀腸의 효능이 보였고, 『中藥大辭典』에서 斂肺澀腸하여 咳嗽와 瀉痢를 치료한다고 했다.

2. 苦楝根²⁷⁾ (『閩閩叢書』)

苦楝根은 苦楝皮와 동일하다. 苦楝根의 기원은 멀구슬나무과의 낙엽교목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 var. *L. japonica* Makino), 연수(楝樹; *Melia azedarach* L.)의 뿌리껍질 또는 나무껍질이다.²⁸⁾ 氣味에 대해 『中藥大辭典』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苦寒하며 有毒하다고 했으나, 『本草綱目』에서는 苦微寒微毒하다고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 蛔蟲 치료와 利大腸을 말하였고, 游風熱毒과 風疹惡瘡疥癩를 치료한다고 했다. 『中藥大辭典』에서 清熱燥濕殺蟲하여 蛔蟲, 蟻蟲, 風疹, 疥癬을 치료한다고 했으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殺蟲療癬하여 蛔蟲病, 蟻蟲病, 鉤蟲病, 頭癬, 疥瘡에 응용한다고 하였다. 세 책에서 공통적으로 蟲病의 치료와 疥癬, 風疹 등의 피부 질환 치료를 언급하였다. 이 약재는 疥癬이 있을 때 苦酒에 개어 바르거나 風疹, 惡瘡, 疥癩 등이 있을 때 물에

달여 환부를 담그거나 씻는 등 外用劑로도 쓸 수 있다.²⁹⁾

3. 鷄腸草³⁰⁾ (『閩閩叢書』)

鷄腸草는 附地菜의 異名으로, 伏地菜나 地胡椒로 일컫기도 한다. 鷄腸草의 기원은 지치과에 속하는 삼년생 초본식물 꽃마리(*Trigonotis peduncularis* Benth.)의 풀 전체이다.³¹⁾ 氣味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辛苦涼이라고 했으나,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五味가 辛苦로 같았으나, 四氣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두 책 모두 赤白痢疾, 發背, 熱腫, 遺尿를 치료하는 내용이 있었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漆瘡, 跌打損傷 등을 치료하는 내용이 더 있었다. 따라서 鷄腸草는 發背, 熱腫, 漆瘡, 跌打損傷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槐花³²⁾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槐花의 기원은 콩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의 꽃 또는 꽃봉오리이다.³³⁾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苦平하다고 하였으나, 『中藥大辭典』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 모두 苦涼하다고 하였고, 肝大腸經에 歸經하는 것도 같았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五痔, 心痛眼赤, 殺腹臟蟲, 皮膚風熱, 腸風瀉血, 赤白痢의 치료를

27)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38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0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02.

2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04.

29)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02.

3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16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94-295.

3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94-295.

3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32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50-55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07.

3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50-552.

언급하였고, 炒香하여 頻嚼하면 失音喉痺를 다스리고 吐血衄血과 崩中漏下를 치료한다고 했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淸熱涼血止血하여 腸風便血, 痔血, 尿血, 崩漏, 衄血, 風熱目赤 등을 치료함을 말하였다. 이는 槐花가 風熱로 인한 피부질환, 目赤, 痔疾 등을 다스릴 수 있음을 뜻한다.

5. 菊34) (『山家要錄』)

菊의 기원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국화(菊花;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의 머리 모양의 꽃차례이다.³⁵⁾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苦平하다고 하였으나, 『中藥大辭典』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모두 甘苦涼하며 肺肝經에 들어간다고 했다.

效能主治에 있어서는 『本草綱目』에서는 諸風頭眩腫痛, 目欲脫, 淚出, 皮膚腐肌, 惡風濕痺를 치료하고, 久服하면 利血氣하고 輕身耐老延年하며, 腰痛, 胸中煩熱을 치료하고, 安腸胃, 利五脈, 調四肢하며, 頭目風熱, 風旋倒地, 腦骨疼痛을 치료하고, 作枕明目이라고 하였으며, 張元素를 인용하여 養目血, 去翳膜을 언급하였고, 肝氣不足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疏風, 淸熱, 明目, 解毒을 말하면서 頭痛, 眩暈, 目赤, 疔瘡, 腫毒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上記의 내용을 보았을 때 菊은 目赤 등의 안과 질환 및 疔瘡, 腫毒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金錢花36)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34)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03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1-5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930.

3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1-52.

3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73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79-281.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962.

金錢花는 旋覆花의 異名이다. 기원은 국화과 식물 금불초(旋覆花; *Inula britannica* L. var. *chinensis* (Rupr.) Reg.), 가는금불초(線葉旋覆花; *Inula linariaefolia* Turcz.), 대화선복화(大花旋覆花; *Inula britannica* L.)의 머리 모양 꽃송이다.³⁷⁾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과 『中藥大辭典』에서 鹹溫하다고 했으나,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맵고 짜다고 하여 鹹味 외에 辛味가 추가되었고, 四氣에 대해서는 약간 따뜻하다고 하였다. 毒性과 관련하여 『本草綱目』에서만 有小毒이라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無毒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肺肝胃經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肺胃經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했으나, 脾大腸經에 들어가는 것이 추가되었고 肝經에 들어가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結氣脇下滿, 驚悸를 치료하고, 除水, 去五臟間寒熱, 補中下氣하며, 胸上痰結·唾如膠漆·心脇痰水·膀胱留飲·風氣濕痺·皮間死肉·目中眵를 없애고, 利大腸, 通血脈, 益色澤하며, 主水腫, 逐大腹, 開胃, 止嘔逆不下食하고, 行痰水, 去頭目風하며, 消堅軟痞, 治噫氣한다고 했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消痰行水下氣하여 痰飲을 치료하고, 噫氣를 치료함을 언급하였다.

7. 代赭石38) (『林園經濟志』)

代赭石은 赭石과 같으며, 기원은 三方晶系의 赤鐵鑛인 三산화이철(Fe_2O_3)이다.³⁹⁾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苦寒하다고 했으나, 『中藥大辭典』에서는 苦甘平하다고 하여 苦味 외에 甘味도 있고, 四氣는 平하다고 한 것이 차이가 있었다.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肝胃心包

3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79-281.

38)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48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587.

3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4.

經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肝心經이라고 하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效能主治에 있어서 『本草綱目』에서는 鬼疰賊風蟲毒을 치료하고, 精物惡鬼·腹中毒邪氣를 죽이며, 女子赤沃漏下, 帶下百病, 產難胞不出, 墮胎를 치료하고, 養血氣하며, 五臟血脈中熱·血痺血瘀를 없애고, 驚氣入腹 및 陰痿不起를 치료하며, 安胎健脾하고, 反胃吐血鼻衄·月經不止·腸風痔·瀉痢脫精·尿血遺溺·夜多小便·小兒驚癇疳疾·金瘡長肉을 치료한다고 했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平肝降逆·涼血止血의 효능으로 噎氣嘔逆, 噎膈反胃, 哮喘, 驚癇, 吐血, 鼻衄, 崩漏帶下, 腸風, 痔瘡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8. 桃莖白皮⁴⁰⁾⁴¹⁾ (『山家要錄』)

桃莖白皮의 기원은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 복숭아나무(*Prunus persica* (L.) Batsch.), 산복숭아나무(*Prunus davidiana* Fr.)의 질긴 나무껍질이다.⁴²⁾ 氣味에 대해서는 『本草綱目』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 모두 苦平하다고 하였으나, 『中藥大辭典』에서는 『本草綱目』의 苦平 외에도 『名醫別錄』의 味苦辛을 併記하였다.

效能主治에 있어서 『本草綱目』에서는 邪鬼中惡腹痛·胃中熱을 없애고, 疰忤心腹痛을 치료하며, 解蟲毒·辟疫癘·療黃膽身目如金·殺諸瘡蟲을 언급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水腫, 痧氣腹痛, 濕瘡의 치료를 언급하였고, 『中藥大辭典』에서는 癰疽, 瘰癧 등을 추가로 언급하여 桃莖白皮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藍(大青葉)⁴³⁾⁴⁴⁾ (『山家要錄』, 『閩閩

4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p.147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8.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49.

41) 『山家要錄』 표현에 복숭아나무 껍질(桃槐 껍질)을 사용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약재 중 桃莖白皮를 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8.

叢書』, 『林園經濟志』)

기원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이년생 초본식물 송랍(菘藍; *Isatis tinctoria* L.)과 대청(*Isatis tinctoria* var. *yezoensis* Ohwi), 쥐꼬리망초과에 속하는 식물 마람(馬藍; *Baphicacanthus cusia* (Nees) Bremek.), 마편초과에 속하는 식물 노변청(路邊靑; *Clerodendrum cyrtophyllum* Turcz.),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쪽(蓼藍; *Persicaria tinctoria* H. Gross.와 *Polygonum tinctorium* Ait.) 등의 잎이다.⁴⁵⁾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苦, 大寒하다고 하였고, 『中藥大辭典』에서는 苦寒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서는 『本草綱目』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책에서 모두 肝心胃經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時氣頭痛, 大熱口瘡를 치료하고, 時行熱毒을 없애며, 溫疫寒熱·熱毒風·心煩悶·渴疾口乾·小兒身熱疾風疹·金石藥毒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熱毒痢·黃疸·喉痺·丹毒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清熱解毒涼血의 효능을 공통적으로 말하면서 瘡瘍腫毒, 丹毒, 口瘡 등의 피부질환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10. 櫟木皮⁴⁶⁾ (『林園經濟志』)

櫟木은 橡木의 異名으로, 櫟木皮는 橡木皮라고도 한다. 기원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상수리나

43)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3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2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980-981.

44) 藍에 대해 靛水, 藍澱, 蓼藍, 靛水, 靛藍 등의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藍의 일종이거나 藍葉을 기본으로 가공하여 만든다. 이에 藍의 내용 중 藍葉(大青葉)에 대해 살펴보았다.

4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22.

4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52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93.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11.

무(*Quercus acutissima* Carr.)의 나무껍질 또는 뿌리껍질이다.⁴⁷⁾ 氣味에 대해 세 책에서 모두 苦平하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서는 『本草綱目』에서 惡瘡를 치료하고, 治痢하며, 消瘰癧함을 말하였고, 『中藥大辭典』에서는 瀉痢·瘰癧·惡瘡를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收斂止痛하여 아메바성 이질과 惡瘡를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惡瘡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달인 물로 환부를 씻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外用劑로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墨48)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墨 또는 香墨은 소나무를 태워 생긴 그을음에 膠汁과 향료를 넣어 가공해서 만든 먹이다.⁴⁹⁾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辛溫하다고 한 반면에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辛平하며 心肝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止血·生肌膚·合金瘡하여 產後血運·崩中猝下血을 치료하고, 血痢와 小兒客忤를 그치게 하며, 利小便·通月經하여 癰腫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止血·消腫하여 吐血·衄血·崩中漏下·血痢를 치료하고, 癰腫發背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墨은 출혈증과 피부질환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百藥煎50) (『林園經濟志』)

4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93.

48)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243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83.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46.

4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83.

50)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79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7-28.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241.

百藥煎은 五倍子와 鬚鬚을 함께 발효시켜 만든 덩어리 형태의 물질이다.⁵¹⁾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酸鹹微甘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酸甘平하며 肺胃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서는 『本草綱目』에서 清肺化痰定嗽·解熱生津止渴·收濕消酒·烏鬚髮·止血하여 久痢脫肛·牙齒宣齩·面鼻疳蝕·口舌糜爛·風濕諸瘡를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두 책에서는 潤肺化痰하여 久咳痰多를 치료하고, 咽痛·便血·久痢脫肛·口瘡·牙疳·癰腫瘡瘍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13. 山杏木52) (『林園經濟志』)

정확한 약용부위가 『林園經濟志』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桑木의 예시를 따라, 가지를 쓴다고 가정하고 杏枝의 효능과 주치를 정리하였다. 杏枝의 기원은 장미과 식물 살구나무(杏; *Prunus armeniaca* L.), 또는 산살구나무(山杏; *Prunus armeniaca* L. var. *ansu* Max.)의 가지이며⁵³⁾, 세 책 모두 氣味와 歸經에 대한 언급은 없고, 主治에 대해 墮傷을 치료한다고 했다⁵⁴⁾.

14. 桑枝55)56)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5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7-28.

52)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90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76.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35.

5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76.

54) 杏枝 자체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杏仁의 내용을 추가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杏仁의 기원은 장미과 식물 살구나무(杏; *Prunus armeniaca* L.), 또는 산살구나무(山杏; *Prunus armeniaca* L. var. *ansu* Max.)의 씨앗이다. 氣味는 苦, 溫하며 有毒하며 肺大腸經에 들어간다. 祛痰止咳, 平喘, 潤腸通便 등의 效能이 있고 咳嗽, 喘滿, 喉痺, 腸燥便秘 등을 치료한다.

55)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p.1479-148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25-126.

桑枝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또는 관목인 뽕나무(*Morus alba* L.)의 어린 가지이다.⁵⁷⁾ 氣味에 대해 세 책에서 모두 苦平하다고 하였으며, 『本草綱目』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책에서 肝經에 들어감을 언급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遍體風癢乾燥·水氣脚氣風氣·四肢拘攣·上氣眼暈·肺氣咳嗽를 치료하고, 消食利小便·久服輕身·聰明耳目·令人光澤하며, 療口乾及癰疽後渴이라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祛風濕·利關節 혹은 祛風通絡하여 風寒濕痺·四肢拘攣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15. 鼠李子58) (『閨閣叢書』)

鼠李子の 기원은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 갈매나무(*Rhamnus davurica* Pall.)의 과일이다.⁵⁹⁾ 氣味에 대해서 『本草綱目』에서는 苦涼微毒하다고 하였는데, 『中藥大辭典』에서는 苦甘涼하다고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甘微苦平하다고 하여 甘味를 추가적으로 언급하였고, 뒤의 두 책에서는 肝腎經으로 歸經하는 것도 언급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寒熱癩瘡·水腫腹脹滿을 치료하고, 下血碎肉하며, 疝瘕積冷·疥癬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淸熱殺蟲하여 水腫腹脹·癩瘡疥癬·疝瘕·齒痛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癩瘡, 癰癤 등의 화농증 및 疥癬에 짓궂어서 붙이는 등 外用劑

로 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16. 鼠李皮60) (『林園經濟志』)

鼠李皮의 기원은 갈매나무과 식물 갈매나무(*Rhamnus davurica* Pall.)의 나무껍질이다. 氣味에 대해 세 책에서 모두 苦微寒하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身皮熱毒·風痺·諸瘡寒熱毒瘡·口疳齩齒·疝蟲蝕人脊骨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風痺, 熱毒을 치료한다고 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石榴皮61) (『林園經濟志』)

石榴皮의 기원은 석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 석류나무(*Punica granatum* L.)의 열매껍질이다. 氣味에 대해 세 책에서 모두 酸澀溫하다고 하였으나, 毒의 有無에 대해 『本草綱目』은 無毒, 『中藥大辭典』은 有毒, 『東洋醫學大辭典』은 약간 독이 있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腎大腸經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胃大腸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下痢漏精을 그치게 하고, 筋骨風·腰脚不遂·行步學急疼痛을 치료하며, 澀腸·下蛔蟲·止瀉痢하며 下血脫肛·崩中帶下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澀腸·止血·驅蟲하여 久瀉久痢·便血脫肛·崩漏帶下·蟲積腹痛·疥癬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石榴皮를 牛皮癬에 갈아 들기름에 개어 바르는 등 피부 질환에 外用劑로 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69.

56) 『閨閣叢書』를 보면 한자로는 桑木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 표현으로는 “뽕나무 굵은 가지를 베면 그 속에 고갱이 붉은 것”을 쓴다고 한 부분도 있고, “뽕나무 누른 껍질”을 쓴다고 된 부분도 있다. 이에 이를 종합하며 桑枝를 염색제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였다.

5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25-126.

58)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29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8-209.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100.

5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8-209.

6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p.2299-230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09.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100.

61)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69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46.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83.

18. 石榴樹皮⁶²⁾ (『林園經濟志』)

石榴根의 기원은 석류나무과 낙엽소교목 석류나무(*Punica granatum* L.)의 뿌리껍질인데, 樹皮를 약용으로 쓰는 지방도 있다.⁶³⁾ 이에 이를 기준으로 보아 石榴根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氣味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苦澀溫하다고 했으나, 나머지 두 책에서는 酸澀溫하다고 하였고, 毒의 有無에 대해 『本草綱目』은 無毒하다고 했으나, 『中藥大辭典』은 有毒과 無毒이 서적별로 차이가 남을 기재했고, 『東洋醫學大辭典』은 有毒하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蛔蟲과 口齒病을 치료하고, 止澀하여 瀉痢帶下를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殺蟲·澁腸·止帶하여 蛔蟲·久瀉久痢·赤白帶下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19. 蘇木⁶⁴⁾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蘇木은 콩과 식물 소목(蘇木; *Caesalpinia sappan* L.)의 속재목을 말린 것이다.⁶⁵⁾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과 『中藥大辭典』에서는 甘鹹平하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甘鹹平 외에도 약간 맵다고 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며,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 공통적으로 心肝經에 들어가면서도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脾經으로 들어가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破血하여 產後血脹悶欲死者·婦人血氣心腹痛·月候不調·毒瘡를 치

료하고, 排膿止痛하며, 癰腫撲損瘀血·女人失音血嘔·赤白痢를 없애고, 虛勞血癖氣壅滯·產後惡露不安·心腹攪痛·經絡不通·男女中風·口噤不語·霍亂嘔逆·瘡瘍死血·產後敗血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活血祛瘀止痛하여 產後腹痛·經閉·跌打損傷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20. 藎草⁶⁶⁾ (『閩閩叢書』)

벼과 식물 조개풀(藎草; *Arthraxon hispidus* (Thunb.) Mak.)의 풀 전체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모두 苦平無毒하다고 하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藎草가 肺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세 책 모두 止咳, 定喘, 殺蟲 등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本草綱目』에서는 皮膚小蟲, 一切惡瘡, 疥癬, 白禿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한 『東洋醫學大辭典』에 따르면 이 약재는 惡瘡, 疥癬, 白禿에 짓뭇어 붙이거나, 약재를 달인 물로 씻는 형태의 外用劑로 쓸 수 있다.

21. 罌粟⁶⁷⁾ (『山家要錄』)

기원은 양귀비과 식물 양귀비(罌粟; *Papaver somniferum* L.)의 종자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모두 甘平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에서는 罌粟이 肺大腸腎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斂肺, 止咳, 澁腸, 止痛 등의 效能이 있으며 久

6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69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44-245.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85.

6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44-245.

64)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78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92-39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45.

6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92-394.

6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69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35.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102.

67)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77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38.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1493-1494,

咳, 久瀉, 脫肛, 腕腹疼痛, 滑精, 多尿, 白帶下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22. 楊梅皮⁶⁸⁾ (『林園經濟志』)

기원은 소귀나무과 식물 소귀나무(楊梅; *Myrica rubra* (Lour.) Sieb. et Zucc.)의 나무껍질이다. 氣味에 대하여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苦溫하다 하였으며, 『中藥大辭典』에서는 苦辛澀溫하다고 하여 매운맛과 짙은 맛이 추가되었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은 理氣, 散瘀, 止痛, 利濕 등의 效能이 있다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痢疾, 跌打損傷, 目翳, 牙痛, 湯火傷, 惡瘡疥癩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跌打損傷, 目翳, 湯火傷, 惡瘡疥癩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3. 連翹木⁶⁹⁾ 껍질 (『山家要錄』)

기원은 물푸레나무과 식물 개나리(黃壽丹; *Forsythia koreana* Nakai), 의성개나리(*F. viridissima* Linl.), 당개나리(連翹; *Forsythia suspensa* (Thunb.) Vahl.)의 열매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 『中藥大辭典』은 苦涼하다고 하였고,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은 心肝膽經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中藥大辭典』은 清熱解毒, 消癥散結 등의 效能이 있으며 溫熱, 丹毒, 斑疹, 癰瘍腫毒, 瘰癧, 小便淋閉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本草綱目』은 鼠瘻瘰癧, 癰腫惡瘡癰瘻, 結熱蠱毒, 五淋, 小便不通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丹毒, 斑疹, 癰瘍腫

毒, 瘰癧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4. 蓮房⁷⁰⁾⁷¹⁾ (『林園經濟志』)

기원은 수련과 식물 연꽃(蓮; *Nelumbo nucifera* Gaertn.)의 다 익은 꽃받침(花托)인데, 蓮蓬殼, 蓮殼이라고도 한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苦澀溫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肝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消瘀, 止血, 去濕하여 血崩, 月經過多, 胎漏下血, 瘀血腹痛, 痔瘡脫肛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추가로 『東洋醫學大辭典』은 黃水瘡, 天疱瘡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本草綱目』은 血脹腹痛, 產後胎衣不下 치료한다고 하였다. 痔瘡脫肛, 黃水瘡, 天疱瘡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5. 五里木⁷²⁾⁷³⁾ (『山家要錄』, 『林園經濟志』)

五里木은 赤楊의 異名으로 자작나무과 식물 오리나무(赤楊; *Alnus japonica* Sieb. et Zucc.) 어릴 때의 부드러운 가지와 잎 및 나무껍질이다. 氣味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苦澀涼하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清熱降火 등의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은 衄血, 血便, 腸炎, 泄瀉, 外傷出血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外傷出血 등의 피부 질환을

68)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18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03-50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99.

69)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86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3-35.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082.

7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46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98.

71) 『林園經濟志』에서는 연실껍질(蓮子殼)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동양의학대사전』을 참고했을 때 蓮房이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하여 蓮房 내용을 서술하였다.

7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95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66.

73) 『林園經濟志』 원문에서는 梧里木으로 기술되어 있다.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6. 五倍子⁷⁴⁾ (『林園經濟志』)

욱나무과의 낙엽소교목 붉나무(*Rhus chinensis* Mill.) 혹은 청부양(靑麩楊; *Rhus potaninii* Maxim.)의 잎 위에 기생하는 배아과(倍蚜科) 곤충 각배아(角倍蚜)와 배단아(倍蛋蚜)에 의하여 형성된 벌레혹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은 酸平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은 酸澁寒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五倍子が 肺大腸腎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斂肺降火, 澀腸止瀉, 斂汗止血, 收濕斂瘡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中藥大辭典』은 肺熱咳嗽, 久瀉久痢, 盜汗, 消渴, 便血, 痔血, 外傷出血, 癰腫, 瘡毒, 皮膚濕爛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한 『本草綱目』은 齒宣疳, 風濕癬瘡, 瘙癢膿水, 五面鼻疳瘡, 腸虛泄痢, 金瘡, 脫肛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便血, 痔血, 外傷出血, 癰腫, 瘡毒, 皮膚濕爛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7. 鬱金⁷⁵⁾ (『閩閩叢書』)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 온윤금(溫鬱金; *Curcuma wenchowensis* Y. H. Chen et C. Ling), 광시아출(廣西莪朮; *Curcuma kwangsiensis* S. Lee et C.F. Liang), 강황(薑黃; *Curcuma longa* L.), 울금(鬱金; *Curcuma aromatica* Salisb.), 아출(莪朮; *Curcuma zedoaria* (Berg.) Rosc.)의 덩이뿌리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은 辛苦寒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74)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上.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8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85-187.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236.

75)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92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71-47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882.

책은 辛苦涼하다고 하였다.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은 心肝膽經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中藥大辭典』은 心肝肺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은 行氣解鬱, 清熱涼血, 清心開竅, 利膽退黃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中藥大辭典』은 行氣解鬱, 涼血破瘀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세 책은 공통적으로 失心癲狂, 尿血, 血淋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胸腹脅肋諸痛, 熱病神昏, 吐血, 衄血, 濕熱黃疸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濕熱黃疸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8. 栗毛球⁷⁶⁾ (『山家要錄』)

참나무과 낙엽교목 밤나무(*Castanea crenata* S. et Z.), 약밤나무(栗; *Castanea mollissima* Bl.)의 총苞이다. 氣味와 歸經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은 化痰, 散結, 解毒 등의 효능이 있다 하였으며,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모두 丹毒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추가로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은 百日咳, 癰癤, 痰核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東洋醫學大辭典』은 腫毒의 치료도 언급하였다. 栗毛球는 癰癤, 痰核, 丹毒, 腫毒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29. 栗殼⁷⁷⁾⁷⁸⁾ (『林園經濟志』)

7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45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6.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54.

77)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45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6-47.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54.

78) 표1의 열료로 쓰인 재료 중 『山家要錄』의 ‘늑지 않은 밤나무를 벗겨 속과 겉 사이 중피’와 『林園經濟志』의 ‘栗木不老者去外皮只取中間皮는 ‘栗莢’라고 稱하며, 기원은 참나무과 낙엽교목 밤나무(*Castanea crenata* S. et Z.), 약밤나무(栗; *Castanea mollissima* Bl.)의 內果皮이다. 『東洋

참나무과 낙엽교목 밤나무(*Castanea crenata* S. et Z.), 약밤나무(栗; *Castanea mollissima* Bl.)의 외果皮이다.⁷⁹⁾ 氣味는 甘澁平하고, 歸經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反胃消渴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瀉血을 그치게 한다고 했으며, 약물을 태우되 약성을 보존한 研末을 鼻衄不止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中藥大辭典』에서는 『本草綱目』과 비슷하게 反胃, 鼻衄, 便血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選方에서 鼻衄不止와 痰火癩癧를 치료하는 내용을 소개하여 癩癧와 같은 피부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洋醫學大辭典』에는 栗殼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栗子의 설명 중 外果皮(栗殼)라고 하였고, 效能主治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 紫草, 芝草⁸⁰⁾ (『山家要錄』,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지치(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S. et Z.)의 뿌리이다.⁸¹⁾ 『本草綱目』의 경우 氣味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기록하였는데 苦甘鹹하다는 설이 있으며 寒溫에 대한 상반된 설명도 기록하였다. 반면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苦寒한 약으로 보았다. 歸經의 경우 『本草綱目』과 『中藥大辭典』은 手足厥陰經에 속하는 약물로 기록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은 心肝經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醫學大辭典』에서는 栗扶 항목이 없고, 『本草綱目』과 『中藥大辭典』에서 모두 그 氣味를 甘平澁, 無毒하다고 했으며, 歸經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骨鯁在咽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中藥大辭典』에서는 骨鯁 외에 癩癧의 치료도 언급하여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6-47.

8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78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21.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763.

8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21.

效能主治에 대해 공통적으로 活血涼血을 언급하였는데, 『本草綱目』은 그 외에도 心腹邪氣를 제거하고 補中益氣, 利九竅, 通水道, 利大腸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고, 『中藥大辭典』은 清熱解毒을 함께 언급했다. 주치의 경우 『本草綱目』은 黃疸, 腹脹滿痛, 小兒瘡, 惡瘡, 癬, 斑疹, 痘毒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은 각종 瘡疹과 더불어 湯火傷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中藥大辭典』의 경우 溫熱斑疹, 紫癩, 吐, 衄, 尿血, 淋濁, 熱結便秘, 燒傷, 濕疹, 丹毒, 癰瘍 등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活血涼血의 효능을 통해 溫熱斑疹, 燒傷, 濕疹, 丹毒, 癰瘍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으며 外用劑로도 활용할 수 있다.

31. 地黃⁸²⁾ (『山家要錄』)

기원은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지황(*Rehmannia glutinosa* (Gaertner) Liboschitz.), 회경지황(懷慶地黃; *Rehmannia glutinosa* Libosch. f. *hueichingensis* (Chao at Sehin) Hsiao)의 신선한 根莖이다.⁸³⁾ 氣味는 『本草綱目』은 甘, 寒하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의 경우 苦味를 추가했으며, 『中藥大辭典』은 涼하다 하여 대동소이하다. 歸經의 경우 세 책에서 모두 心肝腎經으로 들어감을 언급하였으며, 『本草綱目』에는 手厥陰經과 手太陽經이 포함되었다.

效能主治에 대해 滋陰, 養血, 涼血 등이 공통적인 效能으로 기록되었으나 『本草綱目』의 경우 破惡血, 通血脈, 益氣力, 助心膽氣, 強筋骨長志, 安魂定魄 등의 효능을 함께 언급하기도 하였다. 主治는 虛勞나 血證이 위주인데 陰虛發熱, 消渴, 吐血, 衄血, 血崩, 月經不調, 胎動不安, 陰傷便秘 등이 대표적이며, 『本草綱目』과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각각 皮膚燥, 斑

8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68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30-23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20.

8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30-232.

疹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32. 秦皮84) (『林園經濟志』)

물푸레나무과 낙엽교목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백랍수(白蠟樹; *Fraxinus chinensis* Roxb.), 진령백랍수(秦嶺白蠟樹; *Fraxinus paxiana* Lingelsh)의 나무껍질이다.⁸⁵⁾ 氣味는 苦寒하며 肝膽經에 들어가는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大腸經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淸熱, 燥濕, 明目, 平喘止咳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本草綱目』에서는 痺證, 青翳, 男子少精, 婦人帶下, 小兒痢, 身熱, 目中久熱, 兩目赤腫疼痛, 風淚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東洋醫學大辭典』은 濕熱瀉痢와 肺熱喘咳를, 『中藥大辭典』은 細菌性病疾, 慢性氣管炎, 牛皮癬 등을 언급하였다. 秦皮는 안과 및 피부 병증을 포함한 濕熱證 전반을 다스릴 수 있는 약물로 볼 수 있다.

33. 躑躅花86) (『山家要錄』)

기원은 진달래과 식물 양척축(羊躑躅; *Rhododendron molle* (Bl.) G. Don)의 꽃이다.⁸⁷⁾ 氣味는 辛, 溫하고 有毒하며 肝經에 들어간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의 경우 賊風이 皮膚에 들어 은은히 아픈 통증과 溫瘡 및 惡毒에 의한 각종 痺證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中藥大辭典』은

風濕을 몰아내 통증과 頑癬를 치료하고 외상에 의한 疼痛, 頑癬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한편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祛風, 除濕, 鎮痛의 효과가 있어 앞서 언급한 병증들 외에도 蟲齒痛을 다스릴 수 있으며, 찢어 바르거나 달인 물을 머금은 등의 방법으로 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4. 蜀葵花88)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기원은 아욱과 식물 접시꽃(*Althaea rosea* (L.) Cav.)의 꽃이다.⁸⁹⁾ 『本草綱目』에서는 氣味를 鹹, 寒으로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두 책에서는 모두 甘味로 기록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세 책은 모두 和血潤燥와 通利二便의 효능을 언급하였고, 주치병증으로는 『本草綱目』의 경우 小兒風疹癩瘡, 帶下, 目中溜火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痢疾, 吐血, 崩漏, 帶下, 大小便不利, 瘡疾, 小兒風疹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35. 茜根, 茜草根90) (『林園經濟志』)

기원은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덩굴성 초본식물 꼭두서니(*Rubia akane* Nakai), 큰꼭두서니(*Rubia chinensis* var. *glabrescens* Kitagawa), 갈퀴꼭두서니(*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 천초(茜草; *Rubia cordifolia* L.)의 뿌리 및 땅속줄기이다.⁹¹⁾ 氣味는 모두 苦寒하다고 하였으나,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肝經으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中藥大辭典』에서는 心肝經에 들어간다고 하

84)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56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52-455.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11.

8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52-455.

8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49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81-383.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1212-1213.

8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81-383.

8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13-11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043.

8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13-114.

9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59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84-587.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311.

9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84-587.

여 心經이 추가되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補中, 止血, 通經脈 등의 효능이 있어 寒濕風痺, 內崩下血, 骨節風痛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반면 나머지 두 서적에서는 行血止血, 通經活絡, 止咳祛痰의 효능이 있어 각종 出血證, 經閉, 風濕痺痛, 黃疸, 慢性氣管支炎, 癰腫, 跌打損傷 등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36. 梔子⁹²⁾ (『山家要錄』)

기원은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상록관목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Makino), 꽃치자(*Gardenia jasminoides* var. *radicans* Makino), 치자(梔子; *Gardenia jasminoides* Ellis)의 열매이다.⁹³⁾ 氣味는 苦寒하고 無毒하다. 『本草綱目』의 경우 手太陰肺經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두 서적에서는 心肝肺胃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去熱毒風, 瀉三焦火, 解熱郁, 清胃脘血, 明目 등의 효능을 바탕으로 胃中熱氣, 酒鼻, 目赤熱痛, 消渴, 心中煩悶, 黃病, 五淋, 白癩, 赤癩, 瘡瘍, 熱厥心痛, 吐血衄血, 血痢下血血淋, 損傷瘀血, 傷寒勞復, 熱厥頭痛, 疝氣, 燙火傷 등의 다양한 병증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한편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瀉火除煩, 清熱利濕, 涼血解毒하여 임상적으로 心煩, 小便短赤, 熱淋, 血淋, 出血, 癰腫, 瘡毒, 捻挫의 치료에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中藥大辭典』은 추가로 目赤, 咽痛, 熱毒瘡瘍, 扭傷腫痛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로 熱證에 속하는 질병을 다스리며 그와 관련한 각종 血證을 함께 다스릴 수 있다.

37. 香薷⁹⁴⁾ (『閩閩叢書』)

- 9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74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2-20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85.
- 93)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202-204.
- 94)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

기원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의 꽃이 포함된 지상부를 건조한 것이다.⁹⁵⁾ 氣味는 辛微温하며 無毒하고, 肺胃經으로 歸經한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下氣, 除煩熱, 去熱風의 효능이 있어 霍亂吐下, 水腫, 轉筋, 鼻衄, 嘔逆冷氣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나머지 두 책에서는 瞋을 내어 暑邪를 풀며, 水濕을 흘리고, 胃를 따뜻하게 하여 속을 편하게 하므로 여름에 寒邪나 찬 것을 잘못 먹어 생긴 頭痛, 發熱, 惡寒, 無汗, 胸痞, 腹痛, 嘔吐泄瀉와 水腫, 脚氣 등에 쓴다고 하였다.

38. 荊葉⁹⁶⁾ (『林園經濟志』)

기원은 마편초과에 속하는 낙엽관목 모형(牡荊; *Vitex negundo* var. *cannabifolia* S. et Z.)의 잎이다.⁹⁷⁾ 『本草綱目』에서는 苦寒하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두 책에서는 辛苦平하다고 하여 苦味 외에는 차이를 보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久痢, 霍亂轉筋, 血淋, 下部瘡, 濕蘊薄脚, 主脚氣腫滿 등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한편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解表, 祛痰, 化濕의 효능을 중심으로 感冒發熱, 風濕痛, 久痢, 急性胃腸炎, 慢性氣管支炎, 血淋, 초기 乳癰, 濕疹, 皮膚炎, 脚氣, 頭癬, 腳癬의 치료에 쓰인다고 하였다. 『中藥大辭典』도 이와 유사한데 殺蟲과 止痛의 효능이 추가로 보이며, 痧氣腹痛吐瀉, 痢疾, 風濕痛,

- 版公司. 1982. p.142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93-194.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910.
- 9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93-194.
- 96) 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92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55.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122.
- 9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55.

脚氣, 流火, 癰腫, 足癬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두 책을 통해 荊葉이 濕疹, 癰腫, 頭癬, 脚癬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함을 확인할 수 있다.

39. 胡桃青皮⁹⁸ (『林園經濟志』)

胡桃青皮의 기원은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식물 호두나무(*Juglans sinensis* Dode.), 호도(胡桃; *Juglans regia* L.)의 덜 익은 열매의 바깥 겹질이다.⁹⁹ 氣味에 대하여 세 책에서 모두 苦澁하다고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에서는 平하다고 했다. 毒性에 대해서 『本草綱目』에서는 無毒하다고 했으나, 나머지 두 책에서는 有毒하다고 기록했다. 歸經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에서 胃痛, 水痢, 癰腫瘡毒 등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40. 虎杖根¹⁰⁰ (『林園經濟志』)

虎杖根의 기원은 마디풀과 식물 까치수영(虎杖; *Polygonum cuspidatum* Sieb. et Zucc.)의 뿌리줄기이다.¹⁰¹ 氣味에 대해서 『本草綱目』에서는 甘平하다고 했는데, 『中藥大辭典』에서는 苦平하다고 했고,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쓰고 시고 서늘하다고 하여 세 책이 차이가 있었다. 歸經에 대해서 『東洋醫學大辭典』에서 肝經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通利月水·破留血症結·止渴利小便·排膿·破風毒結氣하고, 大熱煩躁·

產後血暈·惡血不下·心腹脹滿·瘡癰癩毒·撲損瘀血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活血祛瘀利濕하여 跌打損傷·濕熱黃疸·燙傷·惡瘡癬疾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41. 紅茶¹⁰² (『林園經濟志』)

紅茶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관목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3년 이상 된 나무의 어린 잎을 茶葉이라 하는데, 이 잎을 시들하게 해서 비비고 발효시킨 다음 말려 잘 손질한 것이 紅茶이다.¹⁰³ 氣味에 대해서는 세 책에서 모두 苦甘하며, 약간 차거나 서늘하다고 했다. 歸經은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心肺脾經이라고 했고, 『中藥大辭典』에서는 脾經 대신 胃經이라고 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利小便, 去痰熱, 止渴, 令人少睡, 破熱氣, 除瘴氣, 利大小腸, 清頭目, 治泄痢하고, 癩瘡·中風昏憤·多睡不醒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清頭目·除煩渴·化痰消食·利尿하여 頭痛·目昏·多睡·心煩口渴·食積·小便不利 등을 치료한다고 했으며,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燒燙傷·脚趾縫爛瘡의 치료를 추가로 언급하였다.

42. 紅花¹⁰⁴ (『山家要錄』,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紅花의 기원은 국화과 식물 잇꽃(紅花; *Carthamus tinctorius* L.)의 꽃이다.¹⁰⁵ 氣味는 세 책에서 모두 辛溫하다고 했으며, 『本草綱目』에서는 독성이 없다고 했다.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心經

98)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1358.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20.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07.

99)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20.

100)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1108.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38-339.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1098-1099.

101)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38-339.

102)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1607.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68-470.

李時珍. 本草綱目(第二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72.

103)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68-470.

104) 新文豊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中.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2. pp.1309-1310.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83-384.

105)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83-384.

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中藥大辭典』에서는 여기에 肝經을 더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產後血暈口噤, 腹內惡血, 不盡絞痛, 胎死腹中을 치료한다고 했고, 活血潤燥, 止痛散腫, 通經의 효능이 있다고 했다. 나머지 두 책에서는 活血通經·去瘀止痛하여 經閉·癥瘕·難產·產後惡露不行·關節疼痛·斑疹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43. 黃丹106) (『林園經濟志』)

黃丹은 鉛丹의 異名이다. 기원은 순수한 납을 가공하여 만든 사산화납(Pb₃O₄)의 가루이다.¹⁰⁷⁾ 氣味는 세 책에서 모두 辛鹹寒하다고 했다. 毒性的 有無에 관하여 『本草綱目』에서는 無毒하다고 했으나, 나머지 두 책에서는 有毒하다고 했다. 歸經에 대해 『中藥大辭典』에서는 心脾肝經에 들어간다고 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除熱下氣·止小便·除毒熱臍癢·久服通神明하고, 吐逆胃反·驚癇癩疾·金瘡血溢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解毒殺蟲生肌하여 癰疽瘡瘍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中藥大辭典』에서는 이 외에도 金瘡出血, 口瘡, 目擊, 湯火灼傷, 驚癇癩狂, 癩疾, 痢疾, 吐逆反胃를 치료하는 내용이 있었다.

44. 黃連108) (『閩閩叢書』)

黃連의 기원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 초본식물 미련(味連; *Coptis chinensis* Franch.), 아련(雅連; *Coptis deltoidea* C. Y. Cheng et Hsiao), 운련

(雲連; *Coptis teetoides* C. Y. Cheng), 일황련(日黃連; *Coptis japonica* Makino var. *dissecta* Nakai)의 뿌리줄기이다.¹⁰⁹⁾ 氣味는 세 책에서 모두 苦寒하다고 했다. 歸經은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에서 心肝胃大腸經에 들어간다고 했다.

效能主治에 대해 『本草綱目』에서는 五臟冷熱·久下泄膿血·消渴大驚·五勞七傷·心腹痛·小兒疳氣 등을 치료한다고 했고, 나머지 두 책에서는 清熱燥濕·瀉火解毒하여 熱盛心煩·濕熱性痞滿嘔吐瀉痢黃疸·癰疽瘡毒 등을 공통적으로 치료한다고 했다.

45. 黃蘆110) (『林園經濟志』)

黃蘆의 기원은 옷나뭇과 식물 황로(黃蘆; *Cotinus coggygria* Scop.)의 木材이다.¹¹¹⁾ 氣味는 苦寒하며 無毒하다는 것이 세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歸經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과 『中藥大辭典』에서는 除煩熱, 解酒疸, 目黃이라고 했고, 『本草綱目』에서는 中風傷寒, 頭痛寒熱驚悸, 氣血痺, 死肌, 胃中冷逆, 胸中嘔不止, 泄痢淋露, 除驚, 去留熱心煩滿, 濃腸胃, 霍亂轉筋 등을 치료한다고 했다. 또한 『東洋醫學大辭典』에서는 湯傷, 火傷, 漆瘡, 赤眼 등에 해당 약물로 씻어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46. 黃柏112) (『閩閩叢書』, 『林園經濟志』)

기원은 운향과의 낙엽교목 황벽나무(*Phellodendron*

106)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277.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0-41.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477-478.

107)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0-41.

108)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111.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71-472.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772.

109)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71-472.

110)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121.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79-480.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982.

111) 東洋醫學大辭典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辭典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79-480.

112)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09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84-486.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1977-1978.

amurense Rupr.), 황피수(黃皮樹; *Phellodendron chinensis* Schneid.)의 나무껍질이다. 氣味에 대해 세 책 모두 苦寒하다 하였다. 歸經에 대해 세 책 모두 腎膀胱經에 들어간다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淸熱燥濕, 瀉火解毒 등의 效能이 있으며 熱痢, 泄瀉, 消渴, 黃疸, 淋濁, 痔瘡, 便血, 赤白帶下, 骨蒸勞熱, 目赤腫痛, 口舌生瘡, 瘡瘍腫毒 등을 치료한다 하였다. 추가로 『本草綱目』은 五臟腸胃中結熱, 黃膽腸痔, 止泄痢, 女子漏下赤白, 陰傷蝕瘡癢驚氣在皮間, 肌膚熱赤起를 치료한다 하였다. 痔瘡, 目赤腫痛, 口舌生瘡, 瘡瘍腫毒, 肌膚熱赤起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47. 黃土113) (『林園經濟志』)

누렇고 거무스름한 흙이다. 氣味에 대해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 모두 甘, 平하다 하였다. 歸經에 대해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心脾胃經에 들어간다 하였다.

效能主治에 대해 세 책 모두 腹內熱毒絞結痛을 치료한다 하였고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은 和中解毒의 效能이 있으며 中暑吐瀉, 痢疾, 癰疽腫毒, 跌撲損傷 등을 치료한다 하였다. 癰疽腫毒, 跌撲損傷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다.

Ⅲ. 考察

1. 염색에 사용된 약물의 氣味

조선시대에 사용된 천연염료들은 옷감의 색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인 동시에 한약처방을 통해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약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천연염료의 약성, 效能主治 등을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성의 四氣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서늘한 성질(寒, 微寒, 涼)을 갖는 약재가 총 47개 중 24개로,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다. 반대로 따뜻한 성질(熱, 微熱, 溫)을 갖는 약재는 金錢花, 石榴皮, 石榴樹皮, 蓮房, 躑躅花, 香薷, 紅花, 楊梅皮 등 8종으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성질이 平하다고 기록된 약재는 桃莖白皮, 櫟木皮, 栗殼, 桑枝, 虎杖根, 蘇木, 蕪草, 罌粟, 荊葉, 百藥煎, 黃土, 胡桃青皮, 墨 등 총 13종이다. 종합해볼 때 염색에 사용된 재료들은 전반적으로 따뜻한 성질보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五味를 기준으로 염료의 성질을 구분해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苦味이다. 藥味는 복수로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문헌별로도 차이가 있었으나, 총 47개의 약재 중 29개가 苦味였으며 전체 약재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타 甘味, 辛味는 10개 내외로 비슷하였으며 澁味, 酸味, 鹹味는 각각 6개, 4개, 3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염료로 사용된 천연물의 다수가 苦寒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가운 성질의 약물은 熱이나 毒에 의해 발생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苦味는 濕을 제거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濕證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濕熱은 인체에 병증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옷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蟲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東醫寶鑑·蟲』에서는 濕熱이 충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으며¹¹⁴⁾, 대표적인 예로 옷감을 비롯해 각종 식물 섬유를 먹고 자라는 좁아벌레(*Ctenolepisma longicaudata coreana*)의 경우 주로 어둡고 습하며 따뜻한 곳에 서식한다¹¹⁵⁾. 따라서 염

113)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209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09.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27.

114)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468. 『東醫寶鑑·內景篇·蟲·濕熱生蟲』“습열이 충을 생기게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 벼의 싹이 비를 맞은 후 벌을 쫓으면 벼의 마디에 벌레가 생긴다. 이 설명이 명확하다(濕熱生蟲, 正如今人俗驗, 禾苗, 雨洒日照, 禾節生蟲, 此說明矣).”

115) 좁. 두산백과. 2000. [cited on April 10, 2024]: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2331&id=40942&categoryId=32502>

색을 통해 옷감에 苦寒한 성질을 더하는 것은 옷감의 보존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苦楝根, 金錢花, 鼠李子, 石榴皮, 躑躅花, 胡桃青皮, 黃丹 등 7개 약물들은 毒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본초서의 설명은 주로 약물을 복용할 때의 독성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염색에 사용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염색에 사용된 약물의 효능

천연염료의 약재들이 주로 가지는 효능은 피부에 발생하는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조사한 약물들이 치료하는 병증의 종류는 瘡, 疹, 疔, 癰, 疽, 癬, 丹毒, 發斑, 鼠瘻, 癩癧, 發背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증상으로는 피부와 肌肉의 염증, 가려움, 저림, 통증, 감각 둔화 증상 및 형태 변화 등이 언급되었다. 염료로 쓰인 총 47개의 약재 중 41개가 피부에 발생하는 병증을 치료하는 약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재들 가운데 증상에 따라 외용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총 11개의 약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苦楝根은 疥癬이 있을 때 苦酒에 개어 바르거나 風疹, 惡瘡, 疥癩가 있을 때 물에 달여 환부를 담그거나 씻어 효과를 볼 수 있다. 鼠李子는 癩癧, 癰, 疥癬에 짓뭇어 붙여서 효과를 볼 수 있다. 薑草는 惡瘡, 疥癬, 白禿에 짓뭇어 붙이거나, 약재를 달인 물로 씻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熱瘡에 靑黛를 갈아서 붙이는 방법, 櫟木皮를 달인 물로 惡瘡를 씻는 방법, 밤나무 껍질을 달인 물로 씻어 丹毒을 치료하는 방법, 胡桃青皮를 달인 물로 癰腫瘡毒을 씻는 방법, 石榴를 개어서 牛皮癬에 바르는 방법 등도 기록되었다. 그 외에 紫草, 黃丹, 黃蘗 등의 약재도 湯火傷, 瘡瘍 등 다양한 병증에 외용제로 쓰인다. 약재로 물들인 옷을 입는 행위는 달인 물을 환부에 바르거나 씻는 치법과 약물이 피부에 직접 접촉된다는 유사점이 있으므로 해당 약물들의 피부병에 대한 치료 효과는 더욱 클 것

로 생각된다.

피부병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효과는 殺蟲과 解毒이다. 상당수의 염료들은 蛔蟲, 蟻蟲, 鈎蟲, 疳蟲, 驅蟲 등의 蟲病을 치료하며, 벌레나 동물에게 물린 독(野狼毒, 蛇虺螫毒),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중독(砒毒, 椒毒, 野菌毒, 肉毒) 등을 치료한다. 蟲病과 毒은 피부병의 주요한 원인에 속하므로 피부에 접촉되는 옷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출혈증도 염료로 사용된 약물의 주치로 자주 언급되었다. 代赭石, 墨, 茜根, 藍, 地黃, 蜀葵, 梔子, 黃連, 蘇木 등 다수의 약물은 吐血, 衄血, 崩漏, 血痢, 腸風, 尿血, 血淋 등의 증상을 치료하며 金創, 打傷, 湯火傷 등의 외상과 그로 인한 어혈도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崩漏, 帶下, 產難胞不出, 墮胎, 產後血暈, 產後血脹悶欲死, 產後敗血沖心欲死 등의 부인과 증상과 翳膜, 目赤, 目欲脫, 淚出, 目中眇 등의 안과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있었다. 부인과 병증과 안과 병증은 子宮 및 肝의 상태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瘀血을 비롯한 血證의 病機와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출혈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눈병을 치료하는 약물 중 梔子是 즙을 내어 점안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피부에 외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접촉을 통해 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정신증상을 치료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代赭石, 桃莖白皮, 藍, 鬱金, 蘆木, 薑草 등은 驚氣, 驚癇, 神昏, 小兒客忤 등을 치료하는데, 이들 증상 대부분은 놀라거나 불안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鬼疰, 鬼魅, 精物惡鬼 등 귀신과 관련된 증상들도 주치증에 포함되었다. 정신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재가 염료로 사용되었을 때 복용 시의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기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염료로 염색한 옷감이 사용자의 긴장을 완화시켜 그렇지 않은 옷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상들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염료로 사용된 약재들의 주치를 종합해 보면, 피부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병증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그중 피부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蟲과 毒 역시 치료 대상에 다수 포함되었다. 증상의 종류로는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들, 가려움증, 발진 및 각종 출혈증이 다수였으며, 부인과 증상들과 안과 증상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특징적이었다.

3 피부병의 원인을 통해 살펴본 염료의 효과

옷은 피부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옷감의 염색에 활용된 약재의 의학적 효과는 일차적으로 피부에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약재의 적응증에 피부병과 그 증상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염료들이 약재로서 실제 피부병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東醫寶鑑』에 기록된 피부병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보았다. 『東醫寶鑑·皮門』¹¹⁶⁾에는 痒痛, 癩疹, 瘡瘻, 丹毒, 麻木, 索澤證, 癩風, 癩瘍風, 白駮, 黑痣鬚子 등의 피부 관련 질환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각각의 병인과 병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痒痛은 血이 肌肉과 腠理를 영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려움증과 火에 속하며 心實證에 속하는 통증으로 대비할 수 있다. 癩疹의 원인은 胃熱, 心火, 熱毒이다. 그중 陰證發癩은 無根之火가 胸中에 모여 肺를 薰蒸해서 생기며, 內傷發癩은 胃氣가 극도로 虛해서 火가 길으로 유행하거나 痰熱이 있어 발생한다. 瘡는 膿을 흘린 후 寒邪가 肌膚로 스며들어가 발생하고 오래되면 瘻가 된다. 膿을 흘리면서 濕邪의 침범을 받으면 瘻와 癩가 생긴다. 丹毒은 惡毒과 熱血이 命門에 몰렸다가 君火와 相火가 결합할 때 발병한다. 麻木는 肺氣의 부족으로 올 수 있으며, 麻는 氣虛, 木은 濕痰과 瘀血이 원인이다. 索은 精血이 말라서 발생하며 足少陽膽經에 병이 들면 索澤이 나타난다. 癩瘍風이나 白駮은 모두 風邪가 피부에 부딪혀서 血氣가 조화되지 못하여 생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東醫寶鑑』의 피부병 병

인과 병기를 정리해보면 癩疹, 丹毒, 癩瘍風, 白駮 등에서 언급된 毒과 瘡, 瘻, 癩, 木에서 언급된 濕을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병인으로 볼 수 있다. 병증을 虛實로 구분하면 痛, 丹毒은 火熱의 實證으로 볼 수 있고 痒, 陰證發癩, 內傷發癩, 麻, 索은 虛證에 해당한다. 그러나 陰證發癩, 內傷發癩의 경우 陰火가 치성한 것에 해당하며 索은 陰虛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설명이 血, 心, 君火, 陰火와 관련지어 설명된 것을 고려하면 血의 병증이 피부 병증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살펴본 결과 앞서 정리한 염료들의 약성 및 주치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寒性和 苦味が 위주가 되는 약성은 血熱을 식혀 주고 濕을 말린다는 점에서 피부병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출혈증, 부인과 증상, 안과 증상, 정신 증상 등은 모두 血의 이상에서 나타나기 쉬운 병들이다.

앞서 총 47개의 염료들은 모두 內服藥으로 쓰이는데, 그 중 대부분인 41개의 염료들은 피부질환과 관련된 效能主治를 가지고 있다. 그 중 11개는 內服藥 뿐 아니라 피부질환에 外用劑로도 쓸 수 있었다. 총 47개의 염료들 중 약 23%인 11개가 外用劑와 內服藥으로 동시에 쓰였으며, 나머지 36개의 염료들은 內服藥으로만 쓰였다.

『內經』의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¹¹⁷⁾라는 구절을 따르면, 본초의 기운은 인체의 皮膚, 九竅, 소화기를 통해서도 인체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¹¹⁸⁾. 그렇기에 外用藥 역시 내과 질환의 치료에

11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6.

118) 신광호. 漢方 外用藥.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4. p.9. : 『內經』에서는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은 하늘에서 오기를 취하고 땅에서 오미를 섭취한다는 뜻이다. 오기는 입을 통하여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오기는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달리 생각하면 오미는 입을 통하여 섭취할 수 있으나 오기는 입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오관을 통하여 혹은 피부를 통하여 취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본초가 가지는 기운은 인체의 피부를 통하여, 구구를 통하여 그리고 소화기를 통하여 인체 내의 기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것이 본초의 외용에 대한 가장 기초 이론적인 근거이다.

116)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p.797-810.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 연구¹¹⁹⁾에서는 피부와 체내의 五臟六腑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는데, 본 논문에서 피부질환에 內服藥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外用 요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와 같은 전제조건 상에 있다. 즉, 內服藥을 활용해 外科 疾患을 치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體表의 經絡과 體內的 五臟은 관련성이 있고¹²⁰⁾, 外用 요법을 內服藥과 병용한다면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¹²¹⁾.

정리하자면, 조선 시대 염색에 사용된 재료들은 옷감에 색을 더하는 동시에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염색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의 실현과 섬유 의 보존에 있겠으나, 당시에 해당 약제들은 염료로서의 역할 외에도 의학적인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천연 염색재료의 활용에서 참고할만한 요소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통적인 천연염료들의 의학적 효과가 가미된 기능성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분석한 염료들의 氣味, 效能, 主治를 근거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약물들을 검토함으로써 추가로 활용 가능한 후보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結論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인 『山家要錄』,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등에 기재된 천연염료들의

약성을 조사정리 및 분석하여 이들이 피부 질환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해당 염료들의 한의학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문헌에서 천연염료로 쓰인 약제를 정리한 결과, 『山家要錄』, 『閨閣叢書』, 『林園經濟志』에서 각각 13개, 18개, 36개의 약제가 확인되었다.
2. 각 약제의 藥性を 『本草綱目』, 『東洋醫學大辭典』, 『中藥大辭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총 47개의 약제 중 24개의 약제가 寒, 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총 47개의 약제 중 29개가 苦한 味를 가지고 있었다. 즉, 염료로 쓰이는 약제가 주로 苦寒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염료로 쓰이는 약제들은 각종 피부병(瘡, 疹, 癰 등), 蟲病(蛔蟲, 蟻蟲 등)과 毒, 출혈증(吐血, 衄血, 血痢 등), 부인과 증상(崩漏, 帶下, 產難胞不出, 墮胎 등), 안과 증상(翳膜, 目赤) 그리고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 증상(驚氣, 驚癇, 神昏, 小兒客忤) 등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4. 염료로 쓰이는 총 47개의 약제 중 41개의 약제가 다양한 피부질환과 관련이 있고, 그 중 11종은 피부 병증에 外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염료가 피부질환에도 사용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 염료들을 사용한 까닭이 심미적 목적이나 섬유 보존의 목적 외에도 의학적 효능까지 포함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고려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기반으로 향후 기능성 염료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옷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므로 옷감의 염색에 활용된 약제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피부에 작용하게 된다. 『東醫寶鑑·皮門』에 나온 병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앞서 살펴본 천연염료 약제들의 치료 효능 주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약제들을 염료로 사용할 경우 피

119) 이석재 외 5인. 내병외치약물(內病外治藥物)에 관한 문헌적(文獻的) 연구(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2). 2009. pp139-199.

120) 蔡炳允 著.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93. pp.13-19. : “外科學의 生理”라는 항목에서 體表의 經絡과 體內的 五臟六腑, 특히 五臟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21) 蔡炳允 著.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93. p.74. : 各疾患의 原因을 判明하여 그 原因에 따라 外部에 直接 藥物을 加하여 體內的 原因까지를 除去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內服藥과 같이 並用하게 되면 좋은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천연염료의 항균성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사용된 천연염료들을 살펴본 결과 옷감의 색을 더하면서 동시에 피부병 등의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재료들이 실생활에 보다 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약재에 대한 세밀한 문헌 검토와 실험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약물의 기미, 주지, 효능을 참고한다면 향후 활용 가능한 후보 약재들을 발굴하여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고경신. 한국 전통 염색방법의 화학기술 (I) - 「규합총서」와 「임원경제지」에 기록된 방법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10(1).
2. 김기훈, 김해곤, 임현아. 감귤박 추출액을 이용한 천연염료로의 염색성 및 기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014. 22(3).
<http://dx.doi.org/10.7741/rjcc.2014.22.3.431>
3. 김순영. 조선시대 염료의 종류와 유형. 한국의류학회지. 2014. 38(2).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5. 鄧贊 外4人. 中草藥天然染料的開發和應用. 中藥材. 2008. 31(09).
<https://doi.org/10.13863/j.issn1001-4454.2008.09.006>.
6. 李時珍. 本草綱目(第二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7. 문우상 외 3인. 외치요법의 이론과 적응증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04. 10(2).
8. 박옥주. 빙허가(憑虛閣) 이씨(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0. 1.
9. 백종숙. 朝鮮時代 染料의 文獻的 考察. 원우논총. 1985. 3집.
10. 憑虛閣李氏 著. 鄭良婉 譯註. 閨閣叢書. 과주. 보진재. 2008.
11. 徐有矩 著. 林園十六誌 卷一. 서울. 보경문화사. 2005.
12. 신광호. 漢方 外用藥. 도서출판 열린책들. 서울. 1994.
13. 新文豐出版公司 編. 新編 中藥大辭典(上, 中, 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14. 여영미, 신윤숙.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수련 잎 추출색소의 염색성과 기능성(2) - 견모섬유를 중심으로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2017. 29(3).
<https://doi.org/10.5764/TCF.2017.29.3.171>
15. 여영미, 유동일, 신윤숙.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수련 잎 추출색소의 염색성과 기능성(1) - 면섬유 염색을 중심으로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2016. 28(4).
<https://doi.org/10.5764/TCF.2016.28.4.290>
16. 염정섭. 山家要錄 農書 부문의 편찬과정과 서술방식. 지역과 역사. 2011. 28.
17. 염정섭.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구성과 내용. 농업사연구. 2009. 8(1).
18. 王風蘭, 張寧. 中藥天然染料的開發和應用初步研究分析.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6. 16(59).
19. 이석재 외 5인. 내병외치약물(內病外治藥物)에 관한 문헌적(文獻的) 연구(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20. 이원권. 기능성 증진을 위한 한방약재와 천연염료의 복합염색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1. 이정은, 권영숙. 실버세대 감성교육을 위한 천연염재 쑥속(Artemisia) 식물의 염료가 염색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015. 24(5).

- <http://dx.doi.org/10.5322/JESI.2015.24.5.633>
22. 이희현. 天然染料에 관한 문헌적 고찰. 關大論文集. 1992. 20(2).
 23. 全循義 撰. 山家要錄. 水原. 농촌진흥청. 2004.
 24. 정명용 외 3人. 이약변문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 외치요법의 처방 선택과 처방조제 원칙 -.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1).
 25. 朱利霞. 中藥天然染料의開發和應用初步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26. 蔡炳允 著. 漢方外科. 서울. 高文社. 1993.
 27.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28. 규합총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cited on April 10, 2024] ;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7%9C%ED%95%A9%EC%B4%9D%EC%84%9C&ridx=0&tot=149>
 29. 산가요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 [cited on April 10, 2024] ;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2%B0%EA%B0%80%EC%9A%94%EB%A1%9D&ridx=0&tot=31>
 30. 임원경제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cited on April 10, 2024] ; Available from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E%84%EC%9B%90%EA%B2%BD%EC%A0%9C%EC%A7%80&ridx=0&tot=23>
 31. 줌. 두산백과. 2000. [cited on April 10, 2024]: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2331&cid=40942&categoryId=32502>